

독서 활동 노트

살바도르, 기후위기에 대한 도전

* 살바도르 고메즈 콜론 지음 권가비 옮김



학생용

무엇이 담겨 있을까?	◆ 2
이렇게 읽었어요	◆ 3
인물 집중 탐구	◆ 4
나의 경험과 관련 짓기	◆ 6
주인공의 마음 읽기	◆ 8
응원의 편지 쓰기	◆ 10
세계는 지금	◆ 11



책을 읽기 전 표지를 살펴보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표지를 보고, 이 책의 내용을 짐작해 보세요.
2.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는 만큼 적어 보세요.
3. 허리케인은 어떤 종류의 자연재해인가요? 조사해서 정리해 보세요.
 - ① 주로 발생하는 지역:
 - ② 특징:

1.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옮겨 쓰세요.
2. 위 내용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4.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1. 아래 문장에 있는 빈칸을 채워 보세요.

살바도르의 고향이자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입은 나라의 이름은 ()예요. 마리아는 ()등급의 강력한 태풍이었지요. 마리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살바도르는 ()과 ()이라는 이름의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모금 운동은 인터넷을 통해 뜻을 알리고 사람을 모아서 후원이나 기부를 받는 ()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요. 살바도르가 이웃들에게 나눠 준 물건은 ()와 ()예요.

2. 살바도르가 이웃을 돕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3. 살바도르의 어머니는 살바도르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4. 살바도르가 첫 주문을 하려고 램프 회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지난여름,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폭우가 내렸고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역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심지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와 대피해야만 했지요.
여러분은 만약 이웃집이 물에 잠기게 된다면 어떻게 그들을 도울 건가요?

-
2. 살바도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태양광 램프와 수동 세탁기를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물건을 나누어주고 싶나요? 두 가지만 적어 보세요.

나눠주고 싶은 물건	그 이유
①	
②	

다음 본문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는 대학생도 아니었고, 재정학 전공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세상을 바꿔보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성공을 제한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마찬가지로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듣지 말라. 그 누구도 당신의 불을 꺼트리게 하지 말라.

— 본문 101쪽

1. 여러분도 살바도르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성공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이 때문에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 보세요.

2. 여러분은 청소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나요?

3. 마지막 문장의 ‘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읽은 후 5 **응원의 편지 쓰기**

살바도르는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공동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금도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노력하는 살바도르에게 응원의 편지를 써보세요.

아래 기사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지난 10월 28일 독일 함부르크 겐제막트 광장.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가 되자 광장에는 10대 청소년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많은 함부르크 시민들이 모였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라는 시위에 동참하는 시민들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자발적으로 모여든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명쾌하다. 시위 참가자인 루이제 포스(28)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 데 모두가 동참하자는 것이며 정부에도 자연과 환경, 기후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는 독일 등 90여 개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스웨덴의 청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9)가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의 연대조직으로 결성된 '청소년 기후 행동'이 2019년 3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벌인 이후 본격적인 기후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 ...

—〈금요일 지구촌선 무슨일이...기후행동 나선 청소년들〉

노컷뉴스, 2022.11.22.

1.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청소년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비정부 기구(NGO)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예요. 정치, 인권, 환경, 차별 없애기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요. 여러분이 아는 비정부 기구가 있다면 적어 보세요.

-
3. 내가 비정부 기구를 만든다면, 어떤 단체를 만들어 무엇을 지키고 싶나요? 또는 바꾸고 싶나요?

편집자의 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선 아이들

〈빛을 든 아이들〉 시리즈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 극심한 역경을 맞닥뜨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지난 경험과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가요? 여러분의 삶 또는 이 사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편집자들은 독자 여러분이 책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열한 삶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지은이 살바도르 고메즈 콜론

카리브해에 있는 섬,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다.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하자 ‘빛과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해 기금을 모으고 태양광 램프와 수동 세탁기를 지역 사회에 전달했다. 〈타임〉이 선정한 ‘2017년 가장 영향력 있는 십대’ 중 한 명이다. 이후에도 카리브해의 여러 나라에서 재난 구호를 이끌었다. 현재 미국 예일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옮긴이 권가비

고려대학교에서 지리교육과 영어영문학을 공부했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했다. 번역서로 《내 인생 최고의 책》 《용서의 나라》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소년의 불록》 《멈춰! 기후변화》, 〈익스플로러 아카데미〉 시리즈가 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을 든 아이들〉 시리즈

재난과 참사로 빅 트라우마를 경험한 청소년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이끌면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논픽션 시리즈입니다.



**아다마,
테러를 향한 외침**
무슬림 차별에 맞선
소녀 이야기

아다마 바 지음 | 권가비 옮김 |
124쪽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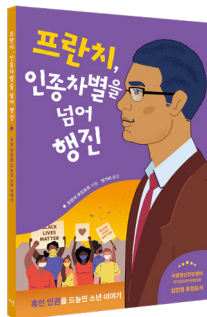
**프레시타,
난민을 위한 노래**
소수민족의 희망이 된
소녀 이야기

프레시타 토리 잔 지음 |
권가비 옮김 | 128쪽 |
13,000원



**살바도르,
기후위기에 대한 도전**
거대한 재난 속
빛을 든 소년 이야기

살바도르 고메즈 콜론 지음 |
권가비 옮김 | 112쪽 |
13,000원



**프란치,
인종차별을 넘어 행진**
흑인 인권을 드높인
소년 이야기

프란치 루진코트 지음 |
권가비 옮김 | 116쪽 |
13,000원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도서출판 다른은 2004년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290여 종의 도서를 출간했으며, 다수의 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교육청, 세종도서 문학나눔 및 교양부문,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행복한아침독서, 어린이도서연구회, 학교도서관저널 등에서 우수도서 및 권장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든다”라는 믿음으로 생태, 평화, 인권, 나눔에 관한 책을 꾸준히 만들어 온 도서출판 다른은, 오늘도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 신간 정보와
활동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다면?



도서출판 다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기후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청소년이 직접 나선 재난 복구 이야기

“2017년 9월, 허리케인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앗아 갔어요.
건물은 무너지고 차들은 날아갔으며 전기와 물은 끊겼지요.
마치 해가 지는 것처럼 희망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고통받는 이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 빛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맞서고 행동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재난, 참사, 차별을 겪고 빅 트라우마를 경험한 십대가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힘들었던 과거를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심민영**

